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문선배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4년 (불기 2568년) 1월 12일 (금)

<http://dongguk.or.kr>

제266호

“모교 위상은 35만 동문 위상”

중앙일보 대학평가 8위 성과와 함께 빛난 ‘2023 동국인의 밤’



▲ ‘2023년 동국인의 밤’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로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도 함께 했다. (<https://youtube.com/live/fvjYx6ukBiA>)

‘2023 동국인의 밤’ 행사가 12월7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부 의식행사와 영상 메시지 △2부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 △3부 만찬 및 문화공연으로 진행된 행사는 모교가 달성한 대학평가 역대 최고 8위 성과를 자축하며 지속 가능한 총동창회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가 역대 최고 8위로 3년 연속 TOP10에 안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모교의 위상은 총동창회의 위상이면서 35만 동문 여러분의 위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돈관스님은 축사에서 “동국인 모두가 소속감과 자긍심을 사회 곳곳에서 발휘해준 덕분이라 여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재웅 총장은 “동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국대학교를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학생 갈라쇼로 오프닝

행사 서막을 알리는 팡파레와 함께 오프닝 무대는 연극학부 안동혁(19학번), 이승민(19학번), 박아름(23학번), 김도은(23학번) 등 재학생 뮤지컬 갈라쇼로 장식했다. 이어서 동국동문합창단(단장 강석우) 40여명이 ‘기다리는 마음’과 ‘울산아가씨’를 합창하면서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로 고조됐다.

미래로 나아가는 동국인연

총동창회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총동창회 미래를 위한 핵심 지표를 공유했다.

핵심 지표로 △총동창회 재원 확충 △동국장학회 장학기금 확충 △동창회관 설립 △성숙한 동국인 의식 함양 등을 제시하고 재원 확충을 기반으로 안정화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도약하는 비전과 목표에 따른 액션플랜 추진성과와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 동창회의 구심점이 될 동창회관 설립은 총동창회가 안정화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도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전 동국인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하이라이트 행사인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에서는 △대상=성영석(경영67) △경제부문=전화성(컴공96) △봉사부문=김영순(화학65) △학술부문=박명관(영문80) △단체부문=광주전남지부 등이 수상했다. 공로상은 △신관호(경제69) △이황(식공72) △정한중(임학80) △박성기(국문82) △마성희(국사82) △김동호(경영98) △지공스님(사대원16) △도심스님(행대원19) 등 동문이 수상했다.

(자세한 기사는 2면 참조)

대학평가 역대 최고 8위

3년 연속 TOP 10 안착



▲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003년 30위, 2005년 44위였지만 2021년 이후 3년 연속 10위권 안에 들었다.

모교는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올해 국내 주요 대학 53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중 4개 계열 이상을 보유한 46개 대학을 △교수연구 △교육여건 △학생교육 △평판도 등 4개 부문의 33개 지표로 종합평가했다.

중앙일보는 1994년 국내 언론 최초로 대학평가를 시작해 교수 연구 실적, 교육여건, 학생 교육을 위한 노력 등을 공신력 있는 자료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생생한 대학 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기사는 8면 참조)

소통 플랫폼 가입 안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비서’를 검색하여 설치



1. 나비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가입한다.
 2. [협회/단체]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를 선택 하고 가입한다.
 3. [협회/단체] 가입은 총동창회 DB에 동문정보(휴대폰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협회/단체] 가입이 안되는 경우, 총동창회 사무처(02-733-0303)로 연락해 동문정보를 등록 또는 수정하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 - 302 - 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고문 100만원 이상 | 부회장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일반회원 3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2023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자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대상 | 성 영 석 (경영67)



삼성에서 34년동안 주요직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리더십을 발휘한 성영석(경영67) 동문.

그는 2009 ~ 2010년 ROTC 총동문회장을 맡아 울트라112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솔선수범하며 매년 꾸준히 장학금을 모금하는 참여형 모금방식을 정착시킨 공적을 인정받았다. 2016 ~ 2017년에는 모교 평의회 의장으로 학내 문제를 원만히 중재해 모교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또 67학번 입학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주관하며 동창회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인터뷰 기사 7면)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경제부문 | 전 화 성 (컴공96)



전화성(컴공96) 동문은 배달 주문을 매장 포스기와 연계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처음으로 선보인 푸드테크 선도기업 씨엔티테크를 창업한 경영인으로 액셀러레이터(AC-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투자자)로 사회 환원 활동을 하면서 모교 미래융합교육원에 스타트업 CEO 및 투자심사역

과정을 개설해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경제부문 활동 공적을 인정받았다. 4,000여개 스타트업 육성, 310개 스타트업에 총 410억원을 투자해 2020 ~ 2022년 3년 연속 국내 AC업계 투자 건수 1위를 달성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봉사부문 | 김 영 순 (화학65)



김영순(화학65) 동문은 모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재양성과 대학 경쟁력 향상에 헌신하다가 정년 퇴임했다.

1962년 출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여자총동창회가 2000년 이후 활동이 미미해지자 2010년 9월 재건에 나서 여성동문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모교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퇴임 후에는 민화 그리기와 전통주 만들기 등 취미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학술부문 | 박 명 관 (영문80)



박명관(영문80) 동문은 모교 영어영문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간 국내논문 92건, 재직기간 국내논문 250건을 게재해 최근 5년간 성과평가 상위 10%이내에 매년 들어 선정됐다.

또 재직기간 연구비 입금액이 약 19억원에 이르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학술부문 후보자는 상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연구논문, 연구비 수주, 성과평가 등 피추천 자격 요건에 따라 모교에서 추천받아 심의해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단체부문 | 광주전남지부 (회장 고천석)



광주전남지부(회장 고천석)는 지역사회 동문들과 소통 공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면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2사분기 지부지회 정책간담회를 주관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단체부문에 선정됐다.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사분기 지부지회 정책간담회를 주관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동문들의 정성을 모아 장학기금 5백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친애하는 35만 동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길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동문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면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하고 발전하는 특별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 동국인의 밤' 행사를 통해 달라진 동국의 위상에 자부심 넘친 동문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지속 가능한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경청과 포용으로 더욱 총동창회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35만 동문님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문선배 합장

상별위원회,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심의



▲ 총동창회(회장 문선배)는 11월21일 상별위원회(위원장 공영대)를 열어 추천받은 2023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후보자를 심의해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공로상 수상자



▲ 왼쪽부터 김동호(경영98), 마성희(국사82), 도심스님(행대원19), 지공스님(사대원16), 문선배 총동창회장(가운데), 박성기(국문82), 정한중(임학80), 이황(식공72), 신관호(경제69)

‘신명나는 미래’ 위한 축제 한마당

총동창회 후원 ‘제1회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



총동창회가 후원하고 모교 학생처와 총학생회가 주최해 열린 ‘제1회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이 11월 3일 만해광장과 남산둘레길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학 학생 문화 회복을 지원하고 재학생들의 애교심과 소속감 고취 그리고 총동창회와 재학생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6월 모교에 1억원을 기부했다.

문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국대 구성원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 함께 ‘더 좋은 동국, 더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남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동

국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백상 응원단과 함께하는 응원전과 남산 걷기,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재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준비한 단체 머플러를 두르고 응원단과 함께 응원가와 율동을 배우며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남산 북측순환로 약 5km를 함께 걸으며 협동심과 팀워크를 다졌다. 행사 후에는 백상 응원단 공연과 레크레이션 및 경품 추첨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총동창회는 모교와 함께 재학생들의 애교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주직할동창회 지부지회 정책간담회

2023년 활동사항과 2024년 행사계획 공유



총동창회는 11월10일 경주직할동창회 주관으로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지부지회 정책간담회를 갖고 총동창회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지부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는 동문 화합과 친목 도모를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부지회 동창회와 함께 총동창회가 신명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참석한 지부지회장들은 12월7일 예정된 ‘동국인의 밤’ 행사 계획과 지속 가능

한 총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공유했다.

이어 지부지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활동사항과 2024년 행사계획 등을 발표하며 총동창회와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부지회 정책간담회는 분기별로 각 지부지회를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동창회’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처음 참석한 원주지회 박윤식(사회79) 회장은 “20여년전 활동했던 원주지회를 복원하고자 여러 동문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2024년 원주지회 정상화를 예고했다.

“애들이 힘내! 선배들이 응원한다!”

여자총동창회, 재학생 응원 이벤트

여자총동창회(회장 윤미정)는 12월4일 모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커피차 응원 이벤트를 펼쳤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기말고사 중인 재학생에게 커피, 레몬차, 쿠키, 꿀 등을 나눠주며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학생을 응원했다.

윤미정 회장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정

을 나누는 커피차 응원 이벤트는 재학생이 동창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자총동창회에서는 핵심사업으로 더욱 더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자총동창회는 “미래 동문인 재학생과 소통하는 행사에 많은 남자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



었다”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여자총동창회는 일일차집과 바자회 등 활발한 활동과 함께 장학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2014년부터 10년째 동국대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부여군공동브랜드



굿드래 Goodtrae



좋은들에 좋은상품 부여군 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ROTC총동문회 이충주 회장 취임



이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2024년 31대 슬로건을 ‘With Juniors’로 정했다”며 “지금보다 더 조금만 후배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OTC총동문회는 11월15일 디노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사를 갖고 31대 총동문회장에 이충주(체교84) 동문이 취임했다.

ROTC총동문회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 후보생 지원율로 인해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불대원 총동창회장 혜담스님 재추대



담스님을 회장에 재추대하고 불교대학원과 총동창회 위상 제고를 다짐했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올해 수해지역과 스리랑카 해외 봉사활동, 성지순례 등 어느 때보다 바쁜 일 년을 보내며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12월7일 퍼시픽호텔에서 송년법회를 열어 한해를 돌아보고 포교에 앞장서온 동문들을 격려했다.

매월 두 차례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활동도 빠트리지 않았다.

한편, 혜담스님은 매년 두차례 대학원생에게 수여하는 정기장학금 외에 특별 장학금을 준비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송년법회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는 혜

WISE 1121 ROTC 임화택 회장 취임



임화택(법학85) 동문이 취임했다.

수석부회장은 정영근(철학86), 사무총장은 이재환(경영89), 장학회 회장은 손용익(회계83) 동문이 맡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준장으로 진급한 이종현

WISE 1121 ROTC총동문회는 12월16일 ROTC 중앙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사를 갖고 14대 총동문회장에

(경제92) 동문에게 축하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하는 행사도 병행했다.

총동림동문회장 진철스님 취임



종책을 맡았으나 ‘수처작주’로 마음을 일으키되,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회장이나 회원을 떠나 우리는 모두가 법도량의 주인 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는 12월5일 하림각에서 정기총회 및 제15·16대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16대 회장에는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스님(인천 황룡사 주지)이 취임했다. 진철 스님은 취임사에서 “회장이라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결성된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는 대중 화합을 위한 성지순례를 비롯해 급식 봉사, 군부대 수계법회, 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 정기총회



학번)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에 선임했다. 이어 수석부회장 류국형(83학번), 감사 김농주(83학번), 김연수(98학번), 사무총장 이창배(94학번) 동문을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는 12월8일 모교 상록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박형길(81학번) 회장이 이임하고 이상로(82

이상로 신임회장은 대전경찰청장과 인천경찰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동국언론인상에 최중홍·한상권 동문



▲ 최중홍 동문

▲ 한상권 동문

학교 발전과 총동문회 및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BTN불교티브 보도본부장 최중홍 동문과 KBS 아나운서 한상권 동문에게 2023년 동국언론인상을 수여했다.

최중홍 동문은 중앙일보 기자, 문화일보 기자, 편집부장, 편집부국장, 문화닷컴 대표 등을 역임했고, 한상권 동문은 KBS 21기 공채 아나운서로 제16대 KBS아나운서협회 회장, KBS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2부장 등을 역임했다.

언론정보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이우현)는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경영학과 동문회 홍석표 신임 회장



했다.

경영학과는 1956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설립돼 지금까지 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동문회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DBA Scholarship과 해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해

경영학과 동문회는 12월16일 로얄호텔에서 송년행사를 갖고 안영찬(85) 회장이 이임하고 홍석표(75) 신임회장이 취임

외 탐방을 지원하는 ‘DBA Explorer 장학금’, 해외 유학지원금 및 본교 대학원 진학지원금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APP 동문의 밤, 박규승 회장 추대



그랜드볼룸에서 동문의 밤 행사를 성대히 열고 13대 박규승 회장을 추대했다.

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동국대학교 APP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학문과 인성교육의 전당으로 뿌리내리는

APP 총동문회는 12월19일 공군호텔

데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년에도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 됩니다”

ROTC 총동문회



전주전북지부



83학번 동기회



85학번 동기회



불교학과 동문회



총동림 동문회



경영대학원 동창회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경찰행정학과 총동창회



동국건축 총동문회



대구경북지부



82학번 동기회



경영학과 동창회



WISE 1121 ROTC



여자총동창회



동국동문합창단



APP 총동문회



강남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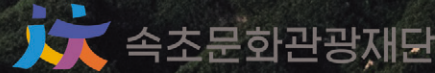


Go EAST '동행 속초'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대상지 선정 -

‘영감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문화도시 속초’

속초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삼진 어묵

SINCE 1953

삼진어묵, 어묵의 문화를 만들다

피란민들의 영양식에서 끼니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국민 반찬으로, 그리고 간식의 영역까지. 삼진어묵은 과거에도, 현재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진어묵은 새로운 문화 개척을 통해 어묵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삼진(三進)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정진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 | 삼진어묵 부산역광장점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모신 '34년의 삼성맨' 한국포리머 회장 - 성영석(경영67) 동문

“모교 재정확충과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 절실하다”



ROTC 후배 위한 ULTRA 장학제도 설립
ROTC 대통령상·국무총리상 건인
뺏속까지 동국인의 자부심

첫 인상이 꼼꼼하고 깐깐해 보인다. 그만큼 빈틈이 없는 인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삼성에서 34년동안 근무한 관록에서 얻어진 품성으로 보인다. 성영석 한국포리머(주) 회장의 캐릭터다. 그는 1973년 삼성에 입사한 뒤 34년동안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중국 동관 삼성전기 유한공사 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성 회장은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모교 평의회 의장, ROTC 총동문회 16, 17대 회장, 67학번 홈커밍데이 추진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통해서도 모교, 총동창회와 인연이 깊다. ROTC 동문회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끈 결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한 기에 당시 수상한 ROTC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건인한 주인공이다.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만난 그는 모교에 대한 사랑과 지지가 뺏속까지 스며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동시에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토로했다. 모교가 지난해 전국대학평가에서 8위에 오른(중앙일보 선정) 성적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과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면 일류 대학으로 더욱 클 수 있다고 자신있게 장담한다.

'2023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 소감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ROTC 총동문회장 재임시와 이임후에도 후임회장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후배들이 대통령상(1등)과 국무총리상(2등)을 동시에 수상한 이력을 소개했다.

“학군단장은 대개 전역을 눈앞에 둔 장교가 부임해 옵

니다. 저는 ROTC 총동문회장을 맡자 학군단장실을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면서 후배들을 독려했죠. 그리고 후배 장학금 조성과 함께 정성적·정량적 평가 매뉴얼을 짜 치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군단장을 달달 볶아서 후배들을 지도하다 보니 누가 학군단장인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그 결과 ROTC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한 기에 동시에 받는 영광을 누렸지요. 매뉴얼대로 후배들을 직접 관리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철 창업주 수행 비서를 하게 된 배경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인맥이나 학연을 따지지 않습니다. 비서실 직원은 당시 13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회장 비서팀장을 맡았는데 제 소속으로 10수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을 통솔하면서 매일 아침 6시30분 집을 나서 오전 7시 40분쯤 회장을 모시고 출근하는데 출근 시간이 시계추처럼 일정합니다. 회장님의 생활 방식은 검소하고 단아하십니다. 옷도 비싼 것 입지 않고, 제일모직 옷감으로 옷을 맞춰 입습니다. 저는 회장님덕 안방을 드나들기도 하고, 때로 식사도 같이하지만, 단순히 수행비서로서 역할하는 것만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한 것은 1977년 12월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면서부터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1983년 3월 15일을 반도체 원년의 날로 선언하고 같은 해 9월 기흥에 메모리 공장을 기공하면서 삼성반도체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것이고 오늘날의 삼성반도체의 초석이 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데다 국가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벌이다 혹시 파산한다면 국가적 피해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에 삼성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때 성 회장은 항상 찬성하는 편에 의견을 보냈다.

“라인 하나를 까는데 1억달러 이상 드는데(오늘날로 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엄두를 못내는 것이죠. 하지만 반도체를 해야만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 나도 지근거리에서 여러 정보를 파악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성 회장은 비서실 근무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삼성전기, 동관 삼성전기 유한공사 대표 등을 역임했다. 1988년 임원 승진해 빠른 임원 기록도 갖고 있다. 그 비결은 평범하지만 성실, 근면, 정직에서 찾는다. 이는 좌우명이자 가훈이기도 하다.

- 삼성에서 성 회장에게 영향을 준 분이 있다면?

“당연히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지요. 그러나 일을 배운 이는 이명환 부장이란 분입니다. 제일모직 시절, 일과를 마치기 전 품의서와 보고서를 쓰는데 명사형은 반드시 한자를 쓰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올리면 이유도 없이 펜으로 줄을 주욱 그어 되돌려주면서 다시 써오라고 합니다. 아무리 훑어봐도 틀린 글자가 없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편을 찾아 일일이 찾아보는데 한군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서 올리면 그때서야 결재를 해줍니다. 완벽주의와 제일주의를 이때 배웠습니다.”

성 회장은 모교 평의회 의장(2016-17)으로서 역할을 했다. 평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모교가 발전할 수 있는 무한 저력과 한계점을 동시에 파악했다.

- 모교의 저력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조계종의 종립학교라는 점이 커다란 힘이 되고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호 상승 보완작용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관계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 되지만 한계도 되고 있습니다. 모교가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8위를 한 점,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5위권 진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단과 재단, 모교, 총동창회의 결속과 단합만 있으면요.”

이를 위해 성 회장은 ▲재정확충과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를 든다.

“모교 재정확충은 재학생 등록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이 학교 재정의 60% 이상이 되기 때문이죠. 교수들의 연구비 수입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연 3위일체가 되는 ‘대학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관 삼성전기 유한공사 대표 시절, 베이징대와 칭화대 벤처 창업 활동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벤처 창업을 통해 한해 3,000억-4,000억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학교에 산업을 접목시켜 산학연 지주회사를 만들어 우수학생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기업을 통한 벤처 창업을 하면 취업도 보장되고, 성공할 경우 이익금의 10-15%를 모교에 내도록 하는 제도 확립을 통해 재정확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설파한다. 모교 발전의 한계가 여기서 비롯된다는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조계종단과 모교 재단, 학내 구성원과 총동창회가 선순환적으로 협업체제를 이룬다면 일류대학으로의 진입은 쉽게 달성되리라 전망한다.

- 모교에 대해 할 말을 더 보탠다면?

“이공계통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법인 전입금도 늘려야 하겠지요. 다른 대학의 법인 전입금은 평균 10% 인פק인데 반해 우리 모교는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 총동창회에 건의할 말은?

“모교의 평판도가 위상을 높이지만 아웃풋(졸업생 업적)의 역할도 동국인 위상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 회장은 모교 졸업하자마자 71년 3년 사귀던 동갑내기 원연희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는데 두 아들 모두 나이 50을 넘었고, 앞가림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일찍 결혼한 것도 나이 먹어서 결혼하면 아이들 뒷바라지가 힘들어 수 있다는 나름의 철저한 계산에서 이루어졌다.

이계홍(국문65, 총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TOP 3 · 글로벌 TOP 50 목표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는 교수연구(10개·95점), 교육여건(12개·95점), 학생교육(7개·80점), 평판도(4개·3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33개 지표, 3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교수 연구 성과는 논문 발행 건수보다 피인용 지표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논문 피인용은 네이버의 글로벌 연구평가 서비스인 '스칼리틱스'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각 학문 분야 별로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상대 비교한 지수(FWC)를 사용했다. 교육 여건 및 학생 교육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의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의 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률과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률 관련 배점을 추가했다. 평판도는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서치앤리서치(R&R)와 함께 기업 인사담당자 400명, 고교 교사 400명,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수연구 · 학생교육 부문 두각

모교는 20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8위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톱10을 기록하며 명실상부 톱 10 대학으로 기틀을 다졌다. 특히 교수연구 부문에서 이전보다 순위가 4계단 상승했고, 이는 종합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교수당 외부 연구비 7위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8위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1위 ▲인문사회 교수당 저역서 8위 등 교수연구 부문 전체적으로 세부지표에서 고르게 약진해 10위에 올랐다. 또한 모교 강점인 학생교육 부문에서도 전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학생교육 부문은 취업이나 학생 창업 지원과 성과, 현장실습과 같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모교는 ▲순수취업률 7위 ▲국내 학생 중도포기율 4위 ▲외국학생 중도포기율 3위 ▲재학생당 창업전담인력 5위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4위를 기록했다. 취업 및 창업지원에서 모두 우수한 대학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그러나 교육여건부문은 여전히 20위 밖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투자한 대학들이 돋보여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강의규모 ▲등록금 대비 교육비 ▲세입 대비 기부금 ▲기숙사 수용률 ▲학생당 자료 구입비 ▲외부 경력 교원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외국대학 학점 교류 등 12개 세부지표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집중 육성 프로젝트

모교의 성과는 수년 간 시행한 이공계 집중 육성 프로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지표

부문	지표	배점
교수연구 (95점)	교수당 외부 연구비	15
	교수당 자체 연구비	10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20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0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	5
	인문사회 교수당 저역서	5
	인문사회 국내논문당 피인용	10
	과학기술 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5
	기술이전 건당 수입액	5
	과학기술 교수당 산학협력수익	10
교육여건 (95점)	전임교원 확보율	8
	등록금 대비 장학금	15
	강의규모	5
	등록금 대비 교육비	10
	세입 대비 기부금	5
	기숙사 수용률	8
	학생당 자료 구입비	7
	외부 경력 교원 비율	5
	외국인 교수 비율	5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10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7
	외국대학 학점 교류	10
학생교육 (80점)	취업 및 진학률	20
	유지취업률	18
	중도포기율	10
	외국학생 중도포기율	2
	학생 창업 지원	10
	학생 창업 성과	10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10
평판도 (30점)	기업 신입사원 선호 대학	8
	교사 입학 추천 대학	8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4
	대학 브랜드 파워 지수(BPI)	10

젝트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인문학 중심이었던 대학이 이공계 분야를 육성하기 시작하며 융합의 시너지가 발휘된 덕이다. 인문사회 연구에 강하다는 기존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공

계와 인문학을 융합하는 연구 지원을 강화한 점,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전면에 내세운 점,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취업 지원에 활용한 점이 부각됐다.

30년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순위가 오른 대학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이뤄낸 점이다. 이론 중심의 연구·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용·실무 교육으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선 점도 돋보인다.

이번 평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재정난 악화 등 대학 안팎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학 특성을 강점으로 활용한 학교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2024 QS 세계대학평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전 세계 5,000여 대학을 평가해 1,500위까지 순위를 매겨 발표한 '2024 세계대학평가'에서 모교는 아시아 110위, 세계 671 ~ 680위 그룹에 속했다. 국내 4년제 대학 중에선 43곳이 올해 QS 대학 순위에 들었고 모교는 2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QS가 올해 대학평가 20주년을 맞아 평가 기준에 국제 연구 네트워크(IRN)와 취업 성과 등 새로운 지표를 반영하면서 한국 대학들의 순위는 대부분 떨어졌으며 모교 또한 ▲2023 : 481위 ▲2022 : 494위 ▲2021 : 456위 보다 하락했다.

비전 2040과 메타플랜 120

모교는 2022년 개교 116주년 기념식에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B2B BUSINESS

삼원아트주식회사

삼성전자 30년 총판, 넷기어 총판



01 프린팅 소모품



정품 잉크, 토너, 복사용지

02 삼성전자 가전제품



삼성전자 전 제품 (업무용, 납품가능)

03 넷기어



프리미엄 Wifi 공유기, 확장기, 무선랜카드

교수연구부문 ※95점 만점

순위	대학명	점수	순위	대학명	점수
1	서울대	72.4	11	전북대	54.0
2	한양대(서울)	72.1	12	아주대	53.6
3	연세대(서울)	70.5	13	건국대(서울)	52.7
4	성균관대	69.0	14	광운대	51.9
5	고려대(서울)	67.4	15	인하대	51.0
6	경희대	61.5	16	국민대	51.0
7	세종대	59.3	17	서강대	49.1
8	이화여대	57.5	18	부산대	48.7
9	중앙대	54.8	19	전남대	47.0
10	동국대(서울)	54.3	20	한양대(ERICA)	46.1

※평가 대상 대학 46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표기

학생교육부문 ※80점 만점

순위	대학명	점수	순위	대학명	점수
1	성균관대	64.6	11	서강대	49.7
2	한양대(서울)	62.1	12	경희대	48.9
3	연세대(서울)	57.1	13	인하대	48.8
4	건국대(서울)	55.9	14	서울시립대	48.4
5	동국대(서울)	55.9	15	국민대	47.6
6	한양대(ERICA)	55.7	16	중앙대	47.0
7	서울대	55.5	17	숙명여대	46.7
8	고려대(서울)	51.8	18	서울과학기술대	45.3
9	아주대	50.3	19	송실대	44.7
10	이화여대	50.0	20	인천대	43.4

※평가 대상 대학 46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표기

기업이 매긴 대학 평판도 어떻게 바뀌었나
 ※1995년은 기업의 학교졸업생 평판도 순위
 ※2023년은 기업의 신입사원 선발 선호대학 순위 기준

순위	1995년	2023년	순위	1995년	2023년
1	고려대	고려대(서울)	11	부산대	부산대
2	연세대	연세대(서울)	12	경북대	경북대
3	한양대	서울대	13	건국대	서울시립대
4	서울대	성균관대	14	인하대	포스텍
5	성균관대	경희대	15	동국대	KAIST
6	중앙대	한양대(서울)	16	단국대	국민대
7	경희대	중앙대	17	충남대	이화여대
8	서강대	서강대	18	홍익대	한국외국어대
9	한국외대	건국대(서울)	19	전남대	세종대
10	KAIST	동국대(서울)	20	영남대	전남대

2040년까지 '국내 톱3'와 '글로벌 톱5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23년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는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25개 핵심과제와 5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메타플랜 120'을 발표했다.

개교 120주년인 2026년까지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ICT 기반의 새로운 대학 경영 가치를 창출해 국내 TOP 3, 글로벌 50을 향한 '비전 2040'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사제도 개편, 학과 신설, 학문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교육 등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첨단 분야 정원 확대

모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화쟁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3학년도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를 광역화하여 신입생을 선발했다.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는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전공 등 5개 전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는 AI융합대학에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와 함께 시스템반도체학부도 신설하여 다양한 학문 간 융합교육을 실현한다.

한편 최근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 미래차·로봇 분야에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가 선정되어 45명 순수 증원을 하게 됐다. 모교는 이번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토대로 지능형 로봇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정원 증원의 대상인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는 2024년부터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와 연계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로봇과 AI가 결합된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도 선정된 모교는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편제 혁신 및 전주기적 산·학·연·지 협력교육을 실현해 동국대 재학생의 SW융합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학문 간 경계 넘어선 융합교육

모교는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별, 전공별 장벽을 허무는 '융합전공제'를 도입했다.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융합전공제는 입학한 학과와 별개로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원 소속 전공과 관계없이 융합전공 최저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융합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융합전공은 어느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든지 이수가 가능해 전공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최근 사회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찰하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만큼 재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이다.

현재 모교는 융합전공으로 '공공인재융합전공'과 '인텔리전스로봇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인재융합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문제(public problems)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측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기술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 및 행정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회계학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인텔리전스로봇융합전공'은 자율사물(AT)로봇, 빅데이터, IoT, 센서기술 등 산업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게 된다.

청년창업 중심 대학문화 조성

모교는 그간 창업중심 대학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국내 최초로 창업휴학제 시행, 창업 대체 학점인정제 운영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해 수많은 학생 스타트업 육성을 육성하고 있으며 예비창업, 초기창업 단계의 청년창업자에게 마케팅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거점대학으로서 튼튼한 토대를 쌓아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BI 지원사업',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등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년창업 선도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마인드 제고 노력

모교는 전 세계 54개국 326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재학생들은 매년 해외대학 교류학생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인터내셔널 서머스쿨, 복수학위 프로그램, 학문단위 국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35만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

모교는 117년의 역사 동안 35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모교 동문들은 학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학교와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에 적극 참여한다. 2011년부터 9년 연속 100억원 이상 모금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모교는 이러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우수교원 초빙과 세계적 석학 육성 등 '연구 경쟁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 조성을 통한 '미래 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 열림이텍



대표이사

오 정 은

Mobile. 010 . 9885 . 1674 · E-mail. jayjay010@hanmail.net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109번길 19 (정발산동)
Tel. 031-923-4395 / Fax. 031-908-4395



대한불교조계종 수락산 도안사

정기법회 및 기도

- 새해 해맞이 특별기도 : 양력 1월 1일~3일
- 신중기도 : 매월 음력 1일~3일
- 약사기도 및 방생 : 매월 음력 8일
- 지장기도 : 매월 음력 15일~18일
- 관음기도 : 매월 음력 24일
- 광명전인 1080독송기도 : 매월 둘째주 금·토·일요일
- 108산사기도회 영상순례 : 매월 넷째주 금·토요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9 www.doansa.or.kr
전화 : (02)936-5936, 931-5557 팩스 : (02)935-5936

三角山 靈佛寺



주지 지산 스님

(교대원 88인)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102
Tel. 02-914-7837
E-mail. yogakk@daum.net



RO Gallery 라우

관장 송 휘

(서양화 2003인)

www.rowgallery.co.kr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 (예술의전당 내) Tel. 054-772-9556

Mobile. 010 . 3530 . 0327

E-mail. songart@hanmail.net, rowgallery@naver.com



(주) 지엘이앤씨

G.L FIRE-FIGHTING & FIRE-ENGINEERING



대표이사

이 기 업

(국민윤리학과 1982)

18384 경기도 화성시 반월길40번길 56 (반월동)
Tel. 031-267-1195 | Fax. 031-267-1196 | E-mail. leegy77@naver.com

제철소 환경에 특화된 위치 검출기

제품소개

www.pos-tech.co.kr



POSTECH (주)포스텍 대표이사 이명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1001호
Tel. 02-865-1595 | Fax. 02-865-1594 | E-mail. ptee@pos-tech.co.kr

학교법인 이사장 돈관스님 재선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1월21일 이사회를 열고 제43대 이사장에 현 이사장인 돈관스님을 재선출했다. 임기는 2027년 12월 7일까지다.

돈관스님은 제14·17대 중앙총회 중회의원,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과 건학위원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석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WISE캠퍼스 총장, 류완하 교수 선임



학교법인은 11월21일 제352회 이사회를 열고 WISE 캠퍼스 신임 총장에 류완하(불교미술 83)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총장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류 총장 내정자는 1997년부터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디자인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국미디어센터장,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기획처장 등을 지냈다.

류 총장 내정자는 글로벌 대학 3.0을 대비해 2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스마트 관광 분야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학제를 신설하고, 경주를 기반해 인문, 영상콘텐츠, 웹툰 등을 배우는 문화콘텐츠 학제를 만들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제정스님



서울캠퍼스 정각원장에 제정스님이 임명됐다. 이사장 돈관스님은 10월 31일 본관 4층 법인 접견실에서 제정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제정스님 임기는 2023년 11월 1일부

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신임 정각원장 제정스님은 모교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금강산 신계사 도감,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응석사 주지,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95명 증원

모교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배정 결과, 총 95명을 증원하게 됐다. 증원된 정원은 △인공지능 분야-컴퓨터·AI학과 50명 △이차전지 분야-미래전지융합공학과 24명 △바이오헬스분야-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13명 △지능형 로봇분야-기계공학과 8명 등이다.

교육부는 △증원 필요성(교육과정) △교원확보 △기자재 확보 △지역산업 협

업 △정부 인력양성사업 참여도 △첨단학과 증원·신설 실적 △연계·융합형 인재양성 노력 △결손인원 우선 활용 정도 등 총 8개 지표를 고려해 증원을 승인했다.

한편, 모교는 미래차·로봇 분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45명 증원에 이어 금번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증원에 선정돼 이공계 중점육성을 통한 융합형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자부 'GTEP 사업단' 최종 선정

WISE캠퍼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6억여 원의 사업비로, 중앙아시아를 특화 지역으로 전 세계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약할 청년무역전문가를 양성한다.

GTEP은 200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융합형 무역 실무 및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맞춤형 지역 전문가를 양성

하고, 지방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GTEP 사업단은 매년 기수별로 운영되며, 2024년 1월에 시작되는 18기 사업에는 약 800명의 학생이 참가해 2025년 3월까지 15개월간 480시간 이상의 무역 실무·해외 지역 특화 교육,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현장 실습, 중소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통한 수출 활동을 진행한다.

초허당 장학 기부금 누적액 113억원



초허당 권오춘(영문57) 교육대학원 종신 석좌교수는 11월28일 모교 로터스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범대학, 미술학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초허당 장학금'은 3학년에 재학

학생에게 전달했다. 권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면서 모교 기부금 누적액이 약 113억원에 달한다.

최진식 고시장학금 1억원 기부



최진식(무역77) 심팩 회장은 12월6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행정·입법고시 및 외교관후보자 1,2차 시험 합격자와 최종합격자 13명에

부해왔다. 최 회장은 13년 전부터 공직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최진식 고시장학금'을 만들어 후원하고 있다.

계 각 300만원씩 총 3,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고시반 지원기금 2,100만원, 석학지원기금으로 4,000만원 등 총 1억원을 기부했다.

올해 1월부터 동국대 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모교 후학 양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동국대에 20억여원을 기

농협동우회 장학금 1,170만원 전달



범농협 동국대 총동창회가 개교 117주년을 맞아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17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농협동우회 박태선(농학82) 고문, 농협동우회 함상수(임학88) 회

장, 농협동우회 김준호(국제통상00)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함상수 농협동우회 회장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등 범농협 8대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동국대 동문은 400여명에 달한다"면서 "농협에 재직 중인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애정을 대신하여 장학금을 전달하니,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해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4학번 동창회 농구부 육성기금 전달



84학번 동창회가 모교 농구부 발전을 염원하며 1,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84학번 동창회를 대표하여 김동규 부회장(화학84), 이호근

감독(경영84), 윤성규(화학84), 김태현(불교84), 사기순(국문84), 권순재(불교84) 동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84학번 동창회는 입학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계기로 동창회 및 다양한 소모임이 결성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 및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Value of Better Life

EUNMIN

(주) 은민에스엔디

“ 생활과 공간의 가치를 연구하고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

SINCE 1998 7,000 PROJECTS 연매출 2,000억

What We Do & Our Strategy
건축, 인테리어 컨설팅에서부터 디자인, 설계, 시공까지 8가지 공간별 전문 PM이 디자인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호텔/리조트
- 업무시설
- 주거시설
- 디자인연구소
- 전시공간
- 상업시설
- 테마파크
- 스파/풀

해외법인 | USA | Hanoi, Vietnam | Phnomphen, Cambodia | Colombo, Sri Lanka | Saipan | Doha, Qatar | Beijing, PR China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6 (논현동, 은민빌딩) www.eunmin.co.kr Tel. 02-6930-2300

연안 유류 해상 운송업

MS (주)진양유조선

국내 해상유류수송의 35년 외길
주)진양유조선은 오늘도
그 자긍심과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황 경 환**
주소: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420, 2층
전화: 054)745-3071~2
팩스: 054)746-5556

한신회계법인 HANSHIN ACCOUNTING LLC

Hanshin Accounting LLC
한신회계법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인회계사 | 김 태 호 (경제학과 · 1987)

조세경영전략 및 자문 외국계 법인 자문 공중 및 비영리기관 자문 M&A 전략 및 가치 평가 경영권리 컨설팅

서울 마포구 독막로 22,4층 (합정동, 청명빌딩)
Mobile: 010-2094-5353 TEL: 02-2088-0366 hanhantong88@gmail.com

DEOTECH 주식회사 데오테크 02-6956-6221

산소계 표면처리 특수약품 공급
환경부 약취처리 공법사(성능인증)

미래를 이끄는 든든한 다팀돌, 뿌리산업 지원기업

'플라스틱 산업의 날' 대상 수상



제25대 총동창회장 송석환 동진기업 회장이 11월24일 열린 제12회 플라스틱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런 플라스틱산업인 대상을 수상했다.

송 회장은 1975년 친환경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기업 동진기업을 창립해 40여년간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식품포장 제품과 산업 및 원예제품 등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해 작년 2천만달러 수출탑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한편, 송 회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인으로 지난 9월 탈북 학생 후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하였으며, 12월에는 야구부 지원금 1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우수 인재 양성과 모교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윤형두 범우사 회장 별세



범우사를 창업한 윤형두(법학55) 회장이 12월3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1966년 도서출판 범우사를 설립한 이후 한국출판학회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임부회장, 한국출판학회 회장· 명예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출판문화상을 4차례(1981·1991·1994·1995) 받았으며 1988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창사 58년동안 6,000여권의 책을 출판했다. 2007년에는 미국 세계인명사전 '후즈후 아메리칸 판'과 '후즈후 아시아 판'에 동시에 등재됐으며 2009년에는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를 대표하는 2천명의 지식인'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고인은 수필가로도 활약하며 '사노라면 잊을 날이'(1979), '책의 길 나의 길'(1990), '한 출판인의 외길50년'(2004), '지나온 세월 속의 편린들'(2006) 등 20여권의 책도 펴냈다.

인 사

KT 법무실장(부사장)



이용복(법학80) 동문이 KT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에서 법무실장(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 부사장은 모교 법과대학 학사와 석사를 수료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대구지방법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거쳐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북한연구학회 28대 회장 취임



김용현(정외85) 모교 북한학과 교수가 북한연구학회 2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4년 12월까지 1년이다.

김 회장은 2006년부터 모교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사회과학대 학

장 겸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연구학회는 전국 대학 내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학자들과 기관 종사자들 86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LH 서울지역본부장 취임



박현근(건축86) 동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에 취임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LH에 입사해 도시정비사업처장과 도시정비계획처장, 공공도시정비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경찰학회 제19대 학회장



김창운(경행90) 경남대 교수가 한국경찰학회 제1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교수는 경찰청 경찰대개혁 TF위원

을 역임했으며 경찰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교육과 연구 발전에 기여해왔다.

1998년 창립된 한국경찰학회는 이항우 교수를 초대 학회장으로 창립된 학술단체로, 경찰학 및 범죄학 그리고 형사사법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와 법조인, 공무원 등 다양한 전공자와 많은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경찰학 및 범죄학 관련 대표 학술단체이다.

희망 2024 나눔성금 전달



(주)진양유조선 환경환 대표이사(사단법인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는 12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주시 3개 봉사단체에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각각 연계해 골고루 지급될 예정이다.

수 상

은관문화훈장 수훈



성우 이근욱(연영65) 동문이 10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술산업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포상제도이다.

2023 중소벤처기업 대상



진재경(영문73) 동문은 '2023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기술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진 동문은 1987년 (주)제이콥이앤시를 창립해 산업용 벨트 및 동력전달장치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독자적인 기술로 최고 수준의 가공 시설을 거쳐 반도체, 로봇 산업 분야까지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은탑산업훈장 수훈



권준명(임학78) 무궁화신탁 대표가 '2023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부동산신탁 업계 임직원은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건 처음이다. 권 대표는 주택제도 개선과 규제혁신 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권 대표는 1985년 한국감정원에 입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소비자 권

익 보호에 힘써 왔으며 1994년 국내 최초 부동산신탁 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에 합류한 뒤 2009년 신규 신탁업 인가를 받은 무궁화 신탁에서 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총괄대표(부회장)로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이창선(경대원14) 동문이 12월5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동문은 코스닥 상장사 (주)비올에서 해외사업부 총괄 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도심스님(행대원19)이 '제10회 2023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교육부문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

상했다.

도심 스님은 대학 후원 및 인재 불사에 앞장서며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 회장 및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외에도 안성불교사암련 부회장, 일문문도 중앙회 수석부회장,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신 간

'제4의 벽'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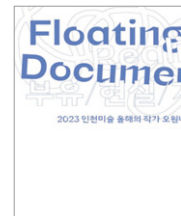


화가 겸 배우 박신양(연영86)이 러시아 유학 시절부터 화가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예술에 대한 갈망으로 미술과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박신양은 2009년부터 '박신양FUN장학회'를 시작해 2017년 한중 교류전 '평화의 섬 제주, 아트섬의 섬이 되다', 2021년 서울아트쇼, 2022년 스타트아트페어, 올해 mM아트센터 '제4의 벽' 등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전 시

오원배의 '부유 / 현실 / 기록'



'2023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오원배(미술72)의 '부유/현실/기록' 전시를 12월 7일부터 24년 3월 3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에서 개최한다.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는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이 처음으로 운영하는 전시 제도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비 등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동창회비 납부시 성명·입학년도·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동창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3년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발전기금 · 장학기금



성영석 (경영)

한국포리머(주) 회장

발전기금 10,000,000

장학기금 5,000,000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송석환 (농림경제)

동진기업(주) 회장

5,000,000



혜담스님 (불교대학원)

계태사 회주

2,000,000



홍파스님 (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2,000,000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국어국문)

1,000,000



수불스님 (대학원)

안국선원 선원장

1,000,000



여자총동창회

회장 윤미정 (수학교육)

1,000,000



전순표 (농학)

(주)세스코 회장

1,000,000



조석규 (도시공학)

(주)대자기업 대표이사

1,000,000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영어영문)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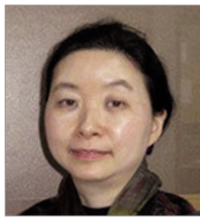


황경환 (교육대학원)

(주)진양유조선 회장

1,000,000

동국장학회



황수경 (대학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2,000,000

고문 100만원 이상



배시영 (경제)

한미민주연합회 회장

\$1,000 (1,246,287원)



김성재 (정치)

아세아재산관리(주) 회장

1,000,000



김종규 (경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1,000,000



김진선 (행정)

前 강원도지사

1,000,000



최상철 (경영)

파인글로벌(주) 대표이사

1,000,000

부회장 100만원



공기태 (화학공학)

세용트레이딩(주) 대표이사

1,000,000



김재웅 (경영)

(주)우성에이디엠 대표이사

1,000,000



김창규 (법학)

솔루션합동 대표변호사

1,000,000



김택남 (경영)

제민일보, 천마그룹 회장

1,000,000



김한배 (연료공학)

오스카빌딩 회장

1,000,000



박순 (불교)

화가

1,000,000



신용인 (행정대학원)

(주)삼우 대표이사

1,000,000



이옥태 (불교)

부산지부 회장

1,000,000



종호스님 (선학)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1,000,000



지공스님 (사회과학대학원)

부산 만덕공동지장사 주지

1,000,000



차연신 (연극영화)

SM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

1,000,000



홍석표 (경영)

경영학과 동창회 회장

1,000,000



황규환 (행정대학원)

관세법인탐스 대표관세사

1,000,000



황문섭 (경영)

(주)아우름전자 대표이사

1,000,000

후원금 납부 방법

모바일 폰에서 아래 QR코드 촬영 링크로 이동 후원하기 선택



▲ 연회비 / 발전기금



▲ 동국장학회 장학금

“ 후원금 납부에 동문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여러분의 후원금은 35만 총동창회의 발전기금입니다

후원금은 1년에 한번 ...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세요.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사무처 전화 02-733-03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 및 일반회원 후원금

- 고문 100만원 이상
- 지도위원 30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10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일반회원 3만원

평생회원 50만원	김준주 (영어영문) 김현권 (경제) 남만우 (사회과학대학원) 박덕철 (토목공학) 박영규 (사회) 박재호 (연극영화) 변용찬 (경제) 오재찬 (회계) 이영숙 (사회교육) 전윤중 (전기공학) 정광시 (경영대학원) 한수한 (APP과정) 한진희 (무역) 한진희 (무역) 화봉진각스님 (한의) 황래열 (체육교육) 미확인 동문	등건성 (건축공학) 류영구 (회계학과) 박대은 (사회과학대학원) 박석신 (광고) 박영호 (경찰행정) 서동부 (사회과학대학원) 신동백 (식품공학) 신원상 (영어영문) 신일섭 (행정대학원) 안병국 (건축공학) 안원길 (식품공학) 양정민 (행정대학원) 어윤소 (경제) 염동락 (국어교육) 윤종원 (한의) 윤창섭 (국어국문) 윤태섭 (대학원) 이상근 (경제) 이상훈 (법학) 이영길 (행정대학원) 이용운 (행정) 이재면 (임학) 이종경 (경영) 이 훈 (수학) 임 준 (체육교육) 임치성 (경제) 장수정 (임학) 장 용 (건축공학) 전신섭 (경영대학원) 최병만 (행정대학원) 최순희 (수학교육)	최중경 (사회과학대학원) 홍성하 (응용생물) 황진택 (행정대학원) 미확인 동문	서동일 (경찰행정) 신덕근 (무역) 신미녀 (대학원) 심광보 (물리) 심재호 (법학) 안경수 (상학) 안정구 (과학교육) 안창영 (임학) 양재길 (APP과정) 오민경 (APP과정) 윤미경 (APP과정) 윤영화 (임학) 이경성 (연극영화) 이광윤 (토목공학) 이규성 (정치외교) 이기호 (영어영문) 이문수 (생물) 이병국 (경영대학원) 이상범 (불교) 이서운 (영어통·번역) 이승준 (일어일문) 이승진 (정치외교) 이승후 (경영대학원) 이영주 (APP과정) 이영훈 (경제) 이재임 (APP과정) 이점원 (미술) 이종섭 (불교대학원) 이창희 (농학) 이태경(이태분) (대학원) 이해영 (APP과정)	이호정 (경영) 이 황 (식품공학) 이흥우 (임학) 임영복 (APP과정) 장명수 (미술) 장미선 (APP과정) 장선영 (문화예술대학원) 장성훈 (APP과정) 장세용 (회계) 정순덕 (국어교육) 정엄스님 (정각사주지) 정용근 (행정) 정용봉 (APP과정) 정이조 (경영대학원) 정현종 (농림경제) 제갈태룡 (경제) 조문수 (화학공학) 조정현 (교육대학원) 조한구 (상학) 천선우 (농업경제) 최돈오 (APP과정) 최순임 (회계) 최영도 (APP과정) 최은기 (독어독문) 최정환 (APP과정) 최종열 (토목공학) 최진태 (회계) 최학지 (법학) 하담스님 (불교대학원) 하정완 (영어영문) 한임동 (APP과정)	홍범석 (회계) 홍진숙 (APP과정) 미확인 동문 5명	김영희 (법학) 10 신승철 (행정대학) 10 진성스님 (승가) 5			
지도위원 30만원	김영화 (경찰행정) 김영희 (법학) 김완식 (농학) 김창환 (경영) 변태원 (법학) 성낙흔 (행정대학원) 성영석 (경영) 유기동 (경제) 윤홍섭 (상학) 이광호 (행정) 조흥기 (영어영문)	김경희 (행정) 김영근 (경찰행정) 미확인 동문 51	연회비 3만원	고경희 (APP과정) 김남수 (상학) 김남순 (APP과정) 김명희 (APP과정) 김민영 (법학) 김성규 (영어영문) 김용정 (APP과정) 김원식 (경영) 김정욱 (행정) 김중선 (공업경영) 김진방 (경제) 김창배 (농학) 김채안 (APP과정) 김춘수 (산업공학) 노문기 (법학) 류기철 (대학원) 명우스님 (불교) 박병준 (건축공학) 박부남 (불교대학원) 박정례 (APP과정) 박희운 (회계) 백용환 (농업경제) 복상철 (언론정보대학원)	이호정 (경영) 이 황 (식품공학) 이흥우 (임학) 임영복 (APP과정) 장명수 (미술) 장미선 (APP과정) 장선영 (문화예술대학원) 장성훈 (APP과정) 장세용 (회계) 정순덕 (국어교육) 정엄스님 (정각사주지) 정용근 (행정) 정용봉 (APP과정) 정이조 (경영대학원) 정현종 (농림경제) 제갈태룡 (경제) 조문수 (화학공학) 조정현 (교육대학원) 조한구 (상학) 천선우 (농업경제) 최돈오 (APP과정) 최순임 (회계) 최영도 (APP과정) 최은기 (독어독문) 최정환 (APP과정) 최종열 (토목공학) 최진태 (회계) 최학지 (법학) 하담스님 (불교대학원) 하정완 (영어영문) 한임동 (APP과정)	발전기금	고천석 (광주전남지부 회장) - 아모레 화장품 5세트 김태욱 (기계공학) 1 김형엽 (경영) 10 동명사 월 2 / 누적 234 유여진(경희) (미술) 10 정엄스님 (정각사주지) 27 차형천 (정치외교) 10 해담스님 (불교대학원) 30	- 협찬품 -	김성재 (아시아재산관리 회장) - 42인치 TV 1대 김용길 (법과대학 회장) - 제주도 호텔 숙박권 5장 이범주 (식품학과 회장) - 화이트닝 앰플 20세트 이상명 (대관령 황태회관 회장) - 대관령 황태 10세트 이영경 (WISE캠퍼스 총장) - 마살스피커 1개 최윤섭 ((사)한국서민연합회장) - 건강식품 4세트 홍종표 (행정대학원총동문회장) - 이투스골프 600장	
상임이사 20만원	김기태 (경영대학원) 김남선 (통계) 김동주 (국사) 김용원 (사회과학대학원) 김용판 (전자공학) 김창기 (경영대학원)	김경수 (회계) 김성호 (경제) 김승관 (경영) 김영극 (전자공) 김일수 (무역) 김종원 (사회과학대학원) 김해동 (언론정보대학원) 김홍원 (식품공학) 도중철 (법학)	김태우 (경영대학원) 김남선 (통계) 김동주 (국사) 김용원 (사회과학대학원) 김용판 (전자공학) 김창기 (경영대학원)	이사 10만원	김태우 (경영대학원) 김남선 (통계) 김동주 (국사) 김용원 (사회과학대학원) 김용판 (전자공학) 김창기 (경영대학원)	동국인의 밤 협찬	서울강남지회 50 (회장 송인모) 김병은 (행정대학원) 50 사회과학대학원 50 (회장 김석만) 정중식 (공업경영) 50 김관수 (행정) 30 방승일 (전자공학) 30 송관수 (회계) 30 박중세 (경영) 20 언론정보대학원 20 (회장 이용현)	- 협찬금 -	장학위원 (신규)	김태우 (기계공학) 백재욱 (법학)



2023년 1월 1일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 등을 담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더불어 세액공제와 담례품 혜택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양평군에 기부하려면 양평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만 가능

기부해 주신 양평고향사랑기부금은

- 양평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
- 담례품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 세부내용

- 기부한도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 담례품** 기부액의 30% 제공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부분부터 16.5% 공제
- 기부방법** 온 라인 N **고향사랑e음** 검색

☎ 고향사랑e음 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방문접수 | 전국NH농협은행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 받으세요!



문의: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031-770-2369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KS표시 인증, 가스주입 단열 복층유리 단체표준 인증

LX하우시스 KCC e·MAX Club

차원이 다른 명품 고기능성 복층유리

소프트 로이 복층유리 | 아르곤 가스주입 복층유리 | 삼중 로이유리

작은 변화 하나로 국내 판유리 업계를 선도하다

단열성능 · 생산성 향상!
결로현상 · 가스누출 최소화!
생산 공정 완전 자동화로 일정한 고품질의 제품 생산!

그린복층유리 최초 개발자 (주)삼호글라스 조용국 회장

품질우선 경영 후대를 위한 초석

▼ 판유리 CNC 절단 및 서클 이동시스템

▼ TPS 단열간봉 자동부착 로봇

SHG 주식 회사 **삼호글라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진로 191-45
Tel. 031) 542-1888 / Fax. 031) 542-1887

회장 **조용국** (불교대학원 CEO과정 8기) Mobile. 010.5248.1534
그린 복층유리 최초개발자 /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 산악회장

www.wdston.com

세계명석 경주남산석 불교조각의 명가

경상북도 석공예부문 최고장인 사대 22기 한 동 식

石
SINCE 1972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대표전화. 054) 777-0404, 776-9500~3 FAX. 054)776-9504
E-mail. od0404@hanmail.net 웹하드 ID.wdston pw.7770404